

# 與 당권 후보들 ‘김건희 문자’ 놓고 충돌 지속

### 한동훈 “내가 대표되는 걸 막겠단 노골적 의도” 경쟁 주자들 “독단 처리...총선 참패 책임져야” 대통령실 “전대 선거 일절 개입·간여 없을 것”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놓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선거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6일 SBS ‘정치컨설턴트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이 시점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자제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문자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은 노골적으로 내가 대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라며 “문자 내용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김 여사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아 결국 김 여사의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한 후보는 “그 시점에 나만큼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김 여사 사과를 요구했던 보

수 정치인은 없었다”며 “대통령실에도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이야기했고 공개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경쟁 주자들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후보가 당과 상의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김 여사 문자 문제를 처리했다며 총선 패배 책임론을 거둬내 들었다.

원희룡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의 민감한 약제였던 영부인 가방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과 당내에서 논의하지 않고 대담도 안한 채 뭉갸”며 “선거 참패로 출마자, 낙선자, 지지자,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줬는가”라고 비판했다.

원 후보는 김 여사의 문자가 사과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한 후보의 주장에 대해선 “자주 해독의 문제로 끌고 가는데, 처분에 따르겠다”는 김 여사의 문자 어디에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가 한동훈 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돌출하면서 후보 간 비방의 수위가 높아지는 등 요동치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왼쪽부터 6일 분당 당원조직대회 참석 한동훈 대표 후보, 6일 원외당원위원장협의회 타운홀미팅 참석 한희룡 대표 후보, 7일 울산시당 당원대회 참석 원희룡 대표 후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윤상현 대표 후보. /연합뉴스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원 후보는 “김 여사의 문자는 (한 후보가) 잘 조율해서 지휘해달라는 것이고, 사과를 허락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선거 전략 차원에서, 당정 협의 차원에서 숙의해야 했다. 정치

를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 하는 것 같다”며 “구차한 변명은 본인을 옹색하게 만든다. 명백한 한 후보의 잘못이고 사실상 해당 행위

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후보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 가장 큰 이슈였고, 풀어야 했다. 당사자인 영부인 문자가 왔으면 당연히 응대해야 했다”며 “사적·공적 관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당사자 이야

기를 듣고 머리를 맞대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7일 ‘김건희 문자’와 관련한 당권 후보들 간의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드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사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한 후보의 이른바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초반 여론조사 선호도 1위였던 한 후보의 독주 전망이 총선 패배 책임론과 당정 갈등 우려론에 이어 김 여사 문자 논란까지 겹치면서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김진수기자

## 정부, 韓銀 ‘일시 대출’ 91조6천억 역대 최대

###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14년 만에 가장 많아 양부남 “교부세 감소 지방 재정 큰 피해 우려”

정부가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자 한국은행의 ‘미이너스 통장’(일시 대출)을 통해 외조원 이상을 대출받아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사진)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갖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6개월간 총 91조6천억원을 빌렸고, 71조7천억원을 상환한 결과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 규모(91조6천억원)는 한국은행이 집계해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재정 지출 규모가 커졌던 2020년 상반기(73조3천억원)를 크게 웃돌고, 대규모 ‘세수 펀크’가 현실이 된 지난해 상반기(87조2천억원)보다도 4조4천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대출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액은 1천201억 원(1분기 688억 원+2분기 6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하지만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펀크 여파로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대규모 감액이 이뤄졌는데 올해도 지방교부세를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대통령실의 중부세 폐지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산교부세 축소는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양부남 의원은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 함께 중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 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이재명, 금주 ‘연임 출사표’...김두관 도전 주목

연임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8·18 전당대회 예비후보 신청 기간인 9·10일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 등록을 할 전망이다. 7일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차기 대표 경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2기 체제’ 구상을 담은 출마 메시지를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의원은 대표 경선에 나설 경

우 대권 주자군으로서 존재감을 알릴 기회가 될 수 있고, 이 전 대표 입장에 서도 일극 체제 단독 출마를 피할 수 있어 외견상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최고위원 레이스는 대표 경선과 달리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인데, 이미 출마 선언을 했거나 출마 선언이 확실시되는 인사만 12명에 이른다. /연합뉴스

## 민주 이성윤 “검찰 개혁 최우선”

### 최고위원 출마 호남 첫 일정 5·18묘지 방문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사진)이 7일 호남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 망월동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이 의원은 37주기를 맞이한 고(故) 이한열 열사를 추모한 뒤 윤상원·박관현 열사를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차례로 방문

해 헌화하고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이 의원은 “30년 동기 윤석열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최고위원으로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 제대로 맞짱뜨겠다”며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을 완수해 검찰을 국민 품



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저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제61대 서울중앙지검장,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맞서다 정권 교체 후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인재를 영입해 국회에 입성했다. /박성강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sup>2</sup>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sup>3</sup>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정

DREAM CHEMICAL KOREA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